20. 한반도의 근대화 노력과 고종

현대 동아시아의 형성(2020s) 독습용 보조교재 & 과제

1. 시청 영상의 설명

본 강의에서도 수업 형태는 다큐멘터리의 시청이 되겠습니다. 다만 지난 두 차례의 강의와는 달리 이번에는 과제가 부여되는데, 본 영상의 주제(고종의 외교전략) 상에서 볼 때, 지난 두 차례의 강의영상(청일전쟁, 러일전쟁)에서 습득한 지식이 과제 작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회차에서 시청할 영상은 다음과 같으며, Youtube에서는 3개의 영상으로 분할되어 있으니 차례대로 시청해주기를 바랍니다.

「한국사 오천년, 생존의 길 제5부: 고종, 열강의 덫에 빠지다」(EBS다큐프라임) : 약 45분, EBS Documentary, 2018.2.27

- 1) https://www.youtube.com/watch?v=GAVnQaZmyew
- 2) https://www.youtube.com/watch?v=laAXwE7cHKA
- 3) https://www.youtube.com/watch?v=Ecm73tZpJ-Y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과제수행을 위한 참고 텍스트로 소개한 마키아벨리 (N. Machiavelli)의 『군주론』(The Prince)의 서지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키아벨리(강정인·문지영 번역)『군주론(개정판)』(까치글방, 2003)

- 2018년 한반도의 위기
 - : 미・중・일・러의 각축장으로 전락?
 - : but 이런 지정학적 위기는 한반도의 역사에서 무수히 반복
 - : ①앤드류 램버트(킹스칼리지 교수), ①칼 아이켄베리(스탠포드대 교수),
 - ①T.J. 펨펠(UC버클리 교수), ①폴 케네디(예일대 교수)
- · Introduction: 동학농민운동의 발발과 고종의 선택
 - : 고종의 청군 파병요청···「약소국 조선의 어쩔 수 없는 선택」?
 - →고종은 위기 때마다 외세를 끌어들여 이를 해결
 - : 1500년 전 김춘추의 사례와의 비교 (똑같이 외세 이용)
 - →그 성공과 실패를 가른 원인은?
 - : ① 김도형(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연세대 교수)
 - →고종이 위기 시에 외세를 이용한 것은 동학군 봉기 때가 처음이 아님

- ・고종의 첫번째 선택: 임오군란(1882)
 - : 고종과 민씨 세력이 청을 끌어들여 대원군 축출 ①이삼성(한림대 교수)
 - : 고종의 「강대국 편승전략」・・・단, 그 실효를 위해서는 이하의 전제조건 필요
 - → 강대국이 과욕을 부리지 않을 것, 이용자 측도 강대국을 제어할 수단을 갖고 있을 것
 - : then 고종은 임오군란의 승리자인가?
 - →진정한 승자는 청(외교/재정상의 간섭과 불평등조약 체결)
 - →이를 고종은 어찌 생각했을까? 후회 or 그럼에도 잘한 선택?
- ·고종의 두번째 선택: 갑신정변(1884)
 - : 급진개화파(=문명개화론자)들의 청에 대한 불만
 - →친청파의 대표격 민씨 일족의 제거(쿠데타)
 - → ① 이삼성···고종의 개혁의지에 대한 실망과 급진화
 - : 갑신정변이 초래한 통치위기에 고종은 다시 청에 원군요청
 - →청군의 궁궐진입과 주한 일본공사(+개화파)의 도망
 - →고종의 선택은 이번에도 「성공적」. But 청의 도움은 공짜가 아님

- ・고종의 두번째 선택: 갑신정변(계속)
 - → ① 김도형 · · · 청의 내정간섭 심화, 청을 보는 고종의 양면적 시선
 - : 고종의 외세의존은 재정파탄 · 친위군 부재 속에서의 「어쩔 수 없는 선택」?
 - →but 「외세는 독毒」. 따라서 「항체」(=군주 개인의 노력)가 필요
- ・고종의 세번째 선택: 동학농민운동(1894)
 - : 앞의 두 차례와는 달라진 상황···일본군이란 변수
 - : 「약소국이 외세를 끌어들이는 것은 쉬울지 몰라도 그 반대는 맘대로 되지 않음」→1500년 전의 당군도 철군할 생각이 없었음. 신라는 그러나 자력으로 이들을 내보낼 힘이 있었음
 - : 일본군의 경복궁 기습···「갑오변란」
 - : ① 피터 두스(스탠포드대 석좌교수)···한국황실 장악 후 전쟁시작
 - : 청일전쟁의 시작···국제역론과 고종은 청의 승리를 예상
 - : 황해해전·평양성전투의 일본승리, 일본군의 여순·위해위 점령이란 예상 외의 전개 ① 피터 두스···청군의 패배 이유
 - : 일본군의 제거대상에는 청군 외에 동학군도 포함

- ・고종의 세번째 선택: 동학농민운동(계속)
 - →고종이 불러들인 외세에 의한 동학농민운동의 종말
 - : 일본의 승리···중국은 더 이상 동아시아 중심X, 중국적 조공/책봉질서 종말
 - : 시모노세키 조약···조선문제 논의 but 조선대표를 위한 자리X
 - →제1조: 조선의 「독립자주」선언과 조공폐지
 - → ① 김도형・・・조선의 「독립」은 그 침략을 위한 최선결 조건
 - : 조선을 둘러싼 열강의 각축전에서 청이 탈락. 고종의 다음 선택은?
- ·고종의 네번째 선택: 아관파천(1896)
 - : 삼국간섭과 고종의 러시아 주목(=일본을 견제할 새로운 외세)
 - : but 이 선택에는 결정적 문제가 존재
 - →전세계에서 러시아와 패권다툼(The Great Game)을 벌이던 영국의 경계심 유발
 - : 고종의 러시아 접근, 시베리아 횡단철도 착공(1891)→영미일의 연대
 - : 「초강대국 러시아란 기차에 올라탄 고종의 종착지는 어디인가?」
 - : 아관파천 이후 고종은 이권양여를 통한 열강간 세력균형을 도모
 - → i 김도형···고종나름의 전략. But 열강합의와 조선의 내부적 힘이 필요

- ・고종의 네번째 선택: 아관파천(계속)
 - : 아관파천이 초래한 악영향···조선독립에 대한 열강들의 싸늘한 시선
 - → ① 이삼성 · · · 조선은 식민지/보호령이 어울린다는 믿음의 유포
 - : 고종의 경운궁 복귀와 대한제국 선포, 칭제(稱帝)
 - →고종은 내정개혁과 외교적 노력에 힘쓰나 이번에는 외세가 문제
 - : 러일전쟁 발발과 일본의 승리
 - \rightarrow i 김도형 \cdots 영/미의 전면적 일본지원(대리전쟁)
 - →한반도에서 일본을 견제할 세력이 전멸→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고종의 선택은?
- ・고종의 마지막 선택: 미국에의 호소
 - : 러일전쟁 이후에는 언론·지식인들도 마찬가지 생각
 - →미국이 조선의 유일한 구원자
 - →고종은 다양한 방법으로 미국에게 호소
 - : H.헐버트를 통한 밀서 전달···미 정부의 부정적 견해, 일본의 방해

 - → i)이삼성···H.알렌의 견해(「일본이 한국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 ・고종의 마지막 선택: 미국에의 호소 (계속)
 - →SO 당시 미국 외교라인의 한국문제 인식은 고종의 인식과는 크게 상이
 - →헐버트의 노력은 무위로 끝남
 - : 을사늑약 이후 미 국무부에 고종이 호소
 - →미국은 외교관계 단절과 공사관 폐쇄로 대응
 - →모든 시도가 실패한 뒤 고종에게 남겨진 선택지는?
 - : 고종의 마지막 승부수···헤이그 만국평화회의(1907)에 밀사 파견
 - →일본의 방해와 미・러의 외면
 - →고종에게 돌아온 것은 강제폐위
- •고종의 외교전략에 대한 평가
 - : 일견 합리적으로 보이는 고종의 외교전략의 문제점
 - →「항체 없는 독의 사용」
 - →독자적 힘의 뒷받침 없는 외교전술의 허망함
 - →「망국의 군주」

여러분들도 알았겠지만, 본 다큐멘터리가 고종과 그 외교전략을 보는 시선은 상당히 비판적이다. 따라서 본 영상 속에 등장하는 코멘테이터들도 기본적으로 고종에 대해 비판적인 학자들이 등장하여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이 시기를 다룬 각종 연구서나 논문, 혹은 관련 영상들을 섭렵하다 보면, 이 다큐멘터리와는 달리 고종의 여러 정치적 시도들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도 적지 않게 존재함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즉, 고종을 바라보는 학계(주로 한국학계)의 평가는 이처럼 극단적으로 양분되어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이제까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 관한 영상들을 시청하였고, 따라서 이 기간 동안의 한중일 삼국의 역사적 상황에 대한 기본적 역사지식들을 어느 정도 숙지했을 것이라 본다. 본 과제에서는 이런 역사적 지식들에 입각하여, 이 시기를 살아 가면서 자신의 권력 유지와 조선(대한제국)의 독립 유지를 위해 분투했던 고종(과 그정책들)에 대해 여러분들이 각자 자신만의 평가를 내려보도록 요구하겠다.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도 좋고,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만을 써 내려가도 좋다. 그리고 과제 작성을 위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중 시청영상과 관련된 부분(원군, 내분, 중립)을 참고 텍스트로 같이 업로드하니, 흥미가 있는 학생은 참조하기 바란다.

분량은 A4 단면 하나 정도이며, 정확한 정보(역사적 사실)인용과 논리적 논지전개 가 평가의 기준이 된다. 아울러 한국인 학생의 경우, 오타와 비문법적 문장도 감점의 대상이 되며, 유학생이라 해도 지나칠 경우는 마찬가지로 감점을 받게 될 것이다.